

농경지 반이 물에 잠겨 농작물이 죽어가고, 수많은 이재민과 수해로 온통 물난리다.

몇몇 전문가들이 나와서 절까지 공사를 잘못 했더니 공무원이 공사 감리를 잘못했더니 난 개발을 했더니 하면서 댐을 만들어라 감사감독을 잘하라 목청을 높이지만 이 또한 성급한 처방이 대부분이며 위험한 처방이 주를 이룬다.

최근의 처방을 보면 절까지 토목공사 시공의 문제점이 여러 문제의 중심에 있고, 이들 공사를 감사 감독하는 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비난하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정신 차린다고 이 일이 해결 되겠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 환경 단체의 반발로 댐 건설을 미룬 것이 문제나 당장 댐건설을 하라고 한다. 어린이가 장난감은 소리 듣는다. 큰 댐을 건설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히 하면 과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문제점이 해결될까. 현실적인 철저한 처방인지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까 말하고 싶다.

우선 절개방식의 토목공사는 우리나라같이 작은 산이 수없이 구불구불 이어져 반복되는 지형지세에는 근본적이다. 때문에 물의 자연스러운 분산과 흐름에 저항하는 공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마지막 선택할 공법



불자 세상보기

박 학 길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폭우도 잘 쓰면 에너지

이치 아무데나 적용될 묘약이 아니다.

특히 강원도 산악 지대와 같은 곳에 도로 및 하천을 건설할 때 자연의 등고선에 저항하는 절개지 공법을 채택하는 자체가 재앙을 가져오는 일차적 원인이다. 절개지를 만들고 직선적 저항형 운백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자연스럽게 흐르려는 물길 즉, 에너지의 통로를 인위적으로 가공하면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를 남길 뿐이다. 큰 댐을 만드는 경우도 작은 수로를 죽여 버리고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켜 계류에 의존해 온 생태계는 병들어 갈 것이다. 집중된 에너지가

잘못 경영될 때는 큰 고통으로 변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단편적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거시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이런 문제점 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분 증발량의 증가와 국가 간 지역 간 열에너지 및 엔트로피 집중화 현상 탓이다. 흐르는 기류의 불균형 등 대립형질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계면에서 공기가 순간적인 이동과 진공효과가 발생하여 국지적으로 폭우 강풍이 수반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경인 지방에서 석

유 화학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폭우와 강우 관리에 대한 대책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소규모 댐이나 저수 공간을 많이 만들어 에너지를 분산하면 물도 관리될 뿐 아니라 국토를 냉각시켜 생태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순기능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생태복원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이 경영하던 사형 하천을 복원시켜 자연수계를 가능한 복원시키자.

절개지 공법을 가능한 선택하지 말고 바람과 물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선형의 고속도로는 지양하자. 등고선을 따르는 작은 지방도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테라스 형이나 교량형의 공법을 선택하여 인위적 법면을 만들지 말자.

하늘이 준 가장 고귀한 자연 에너지 물을 투쟁의 대상이나 고통의 대상으로 보지말자.

이미 인류는 에너지 전쟁 시대에 들어왔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소규모 수력발전 및 열 교환대체 에너지로 저수된 물을 활용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난리 대책을 세우면 폭우야말로 하늘이 이 땅에 내린 가장 값진 영원한 자연 에너지라는 보물이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얼마전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가 사회공적직을 비구니스님에게 맡긴 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활약이 크게 진작된데 힘입어 종단에서도 몇 해 전 총무원의 문화부장과 국장 또는 상임감찰에 비구니스님이 기용된 적은 있었으나 교구본사의 국장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변화다. 이는 불교계에서도 이제 비구니스님들의 능력과 활약상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생각한다.

최근 비구니스님들의 활약상은 실로 눈부실 정도였다. 포교·교육·환경수호·복지·방송 활동 등에서 비구니스님들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엔 그들을 능가하는 구도심과 향학열 사찰운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개혁종단출범 이후 점점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본사 비구니국장 임명

그동안 출가자 절반을 구성하는 비구니스님들은 사실상 종단내에서 주눅이 들어 살았으며 발언권도 없었지 못했다. 아직도 비구니스님들의 활동무대는 여전히 좁다. 그것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팔경계법에 나타나 있는 '백세 비구니도 십세 비구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는 성차별적 대목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성의 출가를 쉽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여성 특유의 여린 감수성을 경계한 것일 뿐, 결코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한계이며 자연적 환경의 문제였을 뿐인 것이다. 만물평등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중요한 근본정신이 아니던가.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불교인답게 불교가 왜 사회적 위상이나 호응도가 낮고 타종교에 밀리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더 할 것 전에 불교의 근본정신을 회복해 교단내외에 뿌리박아야 한다. 왜곡되고 실속없는 일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불교가 사는 진정한 개혁의 길이다.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비구니스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펴도록 자리를 과감하게 더 넓혀야 한다. 차체에 동화시뿐 아니라 다른 본사에서도 비구니스님들에게 소임을 맡겼으면 한다.

■ 도수영(영도량 학우)



이렇게 들었다 교육부총리의 자질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돌아오는 차욕도 차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위정자는 엄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정직과 의를 취해 청백하며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7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어고 지원자의 지역 제한 방지에 대해 "외고 전체가 평준화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꼭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어야 하는지는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고 지원 제한을 2010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6월 19일 발표한 정책의 잡맛을 한 달 만에 사실상 시인했을 뿐 아니라, 김 내정자 스스로 7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을 이를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외고 지원 제한방식은 유예할 일이 아니라 원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김 내정자는 교육정책 대부분을 규제 위주로 일관한 전임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내정자는 대학입시에서의 3불(부정행위 금지, 자립형 사립고와 국제중 확대 반대 등 여전히 세계의 추세와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고수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병적기표목에 중졸 학력으로 기록된 사실, 두 딸의 외고 편입학 과정 등에 대한 의혹 등은 김 내정자의 도덕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불자회 회장을 역임한 불자답게 일각에서 도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명징하게 밝혀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 김주일(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자연이 살아있는 중국 명산 기행



고 재미있다.

옛 선인들의 수록에서만 볼 수 있는 산들을 이 작은 두 발로 겸허함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태가며, 자연의 웅장함과 경외로움에 감탄하며, 그리고 인간의 미약함을 느끼며 오른 산행! 그 자체로 뜻 깊은 배움이었지만, 환경을 지키려는 이 시대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 큰 교훈이며 감동이었다. 특히 2년 전 개방했다는 삼청산은 산길이 깨끗하고 쓰레기의 흔적조차 없다. 제복을 입고 집게와 봉투를 든 사람들이 휴 누가 휴지조각을 흘리더라도 금방 오가며 치웠다.

우리들을 돌아보게 된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명산 계곡과 해수욕장 등의 피서지마다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지에서 각종 쓰레기 투기는 자연 오염의 주범이다. 바다의 경우 해양 사고를 유발하고 또 병조각 등으로 피서객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물론 각 지자체 등에서 '피서지 쓰레기 퇴거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만 지킴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각 지자체에서는 피서지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주셨으면 한다.

철안(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주지)

지난 6월24일부터 30일까지 환경산악모임 회원들 22명과 주지하의 발생지인 중국 무위산을 비롯해 황산 삼청산을 다녀왔다. 등산을 좋아하는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환경산악모임 결성 10주년을 겸한 심로 뜻 깊은 만행이었다.

상해는 서울의 기온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습도가 많은 탓일까 끈적끈적한 느낌이였다. 수평지형으로 작은 언덕조차 보이지 않는 맛잇함을 가진 산이러곤 찾아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산에 대한 그리움이 더한 것 같다.

무위산 명봉 천유봉(750m). 한 개의 바위로 이뤄진 천유봉은 바위물체에 돌을 쪼아 838개의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석공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9개의 골짜기 총길이가 9.5km나 되어 이름이 되어버린 9곡의 정상에서 출발해 맨 아래 1곡까지 굽이굽이 올라가는 시간이 1시간 30분. 6곡까지 내려오자 절벽 전면에 드문드문 관들이 얽혀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옛날 원주민들은 사람이 개를 수평으로 끼워 넣고, 통나무 관을 그 위에 걸쳐 놓고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지금 그 종족은 없어 졌지만 바로 이곳이 당시의 장례풍습을 전하고 있었다.

이튿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렴도, 유향동 계곡과 대흥포 차밭으로

이동하였다.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듯 어수선히 보이지 않는 기념품가게들. 이십여 분 넘게 올라가니 눈앞의 놀라운 절벽(?!). 마치 큰 조개를 앞으로 조금 속여서 세워 놓은 듯 한 동굴이 앞을 막고 나타났다. 계곡이 깊으니 이런 괴물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음날은 대왕봉을 올랐다. 밑에서 볼 때 뒷부분이 서울의 정겨운 산과 닮아서 차 보이지 않는 맛잇함을 가진 산이러곤 찾아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산에 대한 그리움이 더한 것 같다.

깨끗한 산·물 가꾸기 본받아야

계 계단식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다. 70kg 이상 체격이라면 몸에 끼일 정도로 좁은 폭이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아래의 풍경은 숲이 아주 좋고 그 사이로 구불구불한 물이 흐르는 집들이 적당히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마음이 차분해 진다.

복건성을 떠나 버스로 4시간을 타고 강서성 삼청산 밑에 다다랐다. 우리에게서 골짜기 같은 느낌으로 흠뻑들집도 가끔 보였다. 산기는 때문인지 새벽녘 눈을 뜬 후라도 머릿속이 개운하다. 오늘은 하늘이 내려 앉아 128m의 직벽 바위의 어렵한 윤곽이 보일 뿐 밑에서 바라본 장엄한 느낌에 비하면, 구름이 끼어서 인지 능선을 돌아 내려오는 길은 아기자기하



조계종 준중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불교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을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사이즈 : 64.5(너비) x 67(세로) x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코 27개(5m, 리모콘 포함)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입팀)**